

‘잭 더 리퍼’ 10월 1~2일 광주 공연 긴장·감동 ... ‘파워풀 뮤지컬’ 온다



다니엘 역 안재욱

유준상·안재욱·신성우 등 호화 캐스팅

‘사람을 쫓는 자’ 다니엘, ‘광기를 쫓는 자’ 잭, ‘범인을 쫓는 자’ 앤더슨, ‘돈을 쫓는 자’ 먼로.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여인 폴리라 글로리아.

미공의 연쇄 살인 사건을 쫓는 스릴러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어우러진 뮤지컬 ‘잭 더 리퍼’가 광주를 찾는다. 10월 1일 오후 8시, 2일 오후 3시·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공식 참가작인 ‘잭 더 리퍼’는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이는 체코 뮤지컬로 1888년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1988년 런던, 매춘부만 노리는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 사건을 수사중인 앤더슨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려 하지만 런던타임즈 기자 먼로는 코카인 중독자인 앤더슨의 약점을 노리고, 거래를 제안한다.

연쇄 살인범과 사랑 이야기

범인을 잡지 못해 폭발 직전인 앤더슨 앞에 어느날 범인을 알고 있다며 미국 출신 외과의사 다니엘이 나타나고 그의 비극적인 사랑은 또 다른 불행에 이끈다.

‘잭 더 리퍼’는 이야기 구성이 흥미진진한 작품이다. 톨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이야기가 전개되며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든다.

런던 시내를 활보하는 ‘살인마 잭’이 저지르는 사건들이 극을 이끌고 가지만, 결국 이 작품은 애절한 사랑이야기이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슬픈 기록이다.

이번 작품에서 빛을 발하는 건 배우들이다. 감정의 진폭이 큰 배우들이라는 작품보다도 노래 못지 않게 ‘연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래 역시 단순히 고음을 뽑아내는 대신 희로애락의 다양한 감정을 실

는 게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배우 캐스팅은 탁월했다.

특히 극 전반을 이끌어 가는 앤더슨 역의 유준상은 단연 발군이다. 그는 안정적인 연기와 감정을 담은 노래로 관객들을 몰입시키며 감정선을 끌어 올린다.

연기자들 노래 실력 돋보여

또 연기자 출신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안재욱의 노래 역시 감동적이다. 특히 막사랑에 빠진 다니엘의 애뜻함이 돋보이는 1부에서의 연기와 노래가 인상적이다.

또 소녀의 폭발적인 가창력은 나무랄 데가 없으며 기자 역을 맡은 김보래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작품에 유머를 선사하며 극의 양념 역할을 한다.

체코 작곡가 바소 파이테르와 한국 작곡가 이성준이 만든 뮤지컬 넘버들은 매력적이다. 록느낌이 물씬 풍기는 잭의 넘버 ‘이 밤이 좋아’와 ‘사랑을 떠나자’는 신성우의 절절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1부 마지막 장면에서 앤더슨과 다니엘, 먼로, 글로리아가 함께 부르는 ‘취조실’, 앤더슨이 부르는 ‘회색도시’ 등도 깊은 인상을 남긴다.

가장 귀에 감기는 곡은 앤더슨의 연인 폴리라 부르는 ‘아주 오래 전 얘기’다. 옛사랑의 추억을 노래하는 그녀의 노래는 감성적인 멜로디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또 실험실로, 거리로, 집으로 다양하게 변신하는 회전무대는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20인의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하는 라이브 음악은 극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티켓 가격 12만원~6만원. 8월 30일까지 예매하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 문의 062-220-05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앤더슨 역 유준상



글로리아 역 소나



한여름밤의 호수 음악 축제

첨단골열린음악회, 13~15일 쌍암동 호수공원 비보이 등 다채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썩 가시게 할 음악축제 ‘2010 한여름밤의 호수 음악 축제’가 열린다. 13~15일 광주 시 광산구 쌍암동 호수공원.

첨단골열린음악회(운영위원장 정환숙) 주최로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즐거움! 3일간의 색다른 음악의 향연’ 주제로 인디밴드 공연, 비보이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과 노래경연대회가 펼쳐진다.

13일 첫날에는 ‘락(樂)’을 주제로 ‘스콜존’ 등 인디밴드들의 공연이 열린다. ‘하니브레드’, ‘달토끼’, ‘뽕가드’, ‘버스터포스’, ‘SP the#’ 등이 무대에 선다.

또 인디밴드 공연과 함께 보디빌더쇼, 마술쇼, 퍼포먼스, 댄스 공연 등도 준비됐다.

이어 둘째날인 14일에는 노래경연대회가 열린다. 지난 5일과 8일 실시된 예선을 통과한 시민들이 참여해 열린 경연을 펼친다. 오명자·홍주연·볼테산 등 가수들이 출연, 축하공



제1회 한여름밤의 호수 음악 축제’ 밸리댄스 공연 모습.

연을 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광산구민이 함께하는 ‘통일 한마당’이 펼쳐진다.

평화와 공존이라는 주제로 전통음악, 통기타 가수, 클래식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축제기간 ‘천체관측 체험’ ‘추억의 봉숭아물들이기’ ‘아빠와 함께하는 모험 곤충 만들기 체험’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대회’ 등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장터도 운영된다.

문의 062-973-88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림 속 옛 배 보세요”

17일부터 목포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성낙준)는 오는 17일~10월3일 연구소 기획전실에서 조선시대 강과 바다를 누비던 배들을 옛 그림을 통해 살펴보는 ‘조선시대 그림 속의 옛 배’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단원 김홍도를 비롯해 조선시대 이류나 화원들의 작품 50여점과 그림 속 배의 모형을 함께 선보인다.

왕실은 물론이고 관아와 양반, 서민들의 생활문화 속에 배가 어떤 의미로 녹아들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전시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김홍도 단원풍속화첩 중 나룻배

무인, 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13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6개월간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심화이론수업과 8차례에 걸친 특별강의를 거쳤다. 또 6개 팀으로 나눠 콘서트 합레 광주, 문화터·문화방(칠석동·양림동), 문화예술특성화구역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실습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수료식에 앞서 결과보고 전시회 자리도 마련됐다. 13일까지 그 동안의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추진성과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홍보관에서 전시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화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전시회·수료식

조선대 ILIS 추진단

문화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 전시회와 수료식이 열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고 조선대 ILIS 특성화추진기획단(단장 이승권) 주관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창의적 시민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인력양성과정’ 수료식이 14일 오전 10시 조선대 분관 4층 4211호 강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수료식은 지난 7월까지 국내 문화예술 기획전문가들의 심화이론 수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문화프로그램의 실습과제로 제시한 프로젝트 ‘Action Learning’ 과정까지 모두 마친 수강생 8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문화전문인력양성 과정은 시민문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자 과정과 시민문화활동가 과정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공연 기획자, 예술가, 공

Shin Yang Park Hotel

2010. 8. 20(금) 19:00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 홀

*예약 및 상담 - 대표전화 : 062) 228 -8000 / 예약실 : 062) 228-4711~2 | 주최 및 주관 |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Dinner Show

송대관

₩ 150,000원(VAT포함)

moviehol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 영희사당 | 매일 심야상영 / 오남최대주장장 / www.joycbc.com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영역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CINUS

색깔있는 영화신학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